

흡산의 소리

어느 물지각한 학군단생에게 하고 싶은 말

캠퍼스내를 돌아 다니다보면 꼭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짧게 깎은 머리에 베레모를 쓰고, 재킷을 입고 다니는 학군단생. 3월이라 그런지, 여기저기서 그들이 '흡산', '흡산'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흡, 시끄럽긴 하지만, 그들 교육의 일부라 하며 본관 건물에서 대할 준비를 표시로서 여겼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가 깨진 것은 3월20일 11시가 좀 넘어서였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본관 건물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바르 뒤에서 '흡-흡'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컸던지, 캠퍼스 놀라 귀를 막고, '아유, 시끄럽다'라고 하고, 앞에 오던 학군단생 한명이 내 앞에 멈추어 서서, 한참동안 나를 노려보다가 갔다. 이기가 없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히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다. 구름소리의 장본인이 학군단생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하는 말이,

『조심해, x××너야』였다.

정말 말이 없어,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뒷모습만 노려보다가 갔다.

그후, 총학생회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사실을 얘기했다. 이런 일이 비단 나뿐만은 아니라고 했

다. 어쨌든 학군단들은 타학생에게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차파, 그들외에 학생이지 않은가? 타학생들은 그들앞에서 그러한 표현도 하지 못하고, 위축되어야만 하는가?

학군단이 외대에 어떤 지대한 공을 세웠는지, 아니면 세를 갚던 것인지 잘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같은 학생인 우리가 그들앞에서 시끄럽다는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물론, 전체 학군단이 앞에서 말했던 학생들과는 같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단정하게 차려 입고, 전체인 인상을 풍기며 다니는 그들이 타학생들에게 속이나 하고,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교복을 가진 채 무슨 그런 뻔한 구름소리를 타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학군단들도 타학생들의 그런 표현을 이해해야만 될 것이다.

시끄럽다고 무의식중에 내뱉은 소리때문에 왜 그런 매서운 눈초리를 받아야 하고, 욕을 들어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군단 전체의 명예와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학군단생들은 물상에서 행동

을 삼가해 주었으면 한다. (서양·독자3 권재정)

흡산(HUFSAN)은 외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학생부, 대학원생, 직원, 교수, 학부보, 바로 이 분들이 '흡산의 소리'를 뛰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외대학보에서는 학내·외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인정이 넘쳐 나는 따뜻한 사건에 대한 훈훈한 목소리를 '흡산의 소리'에 담고 있습니다.

200자 원고제 2~7행으로 형식은 자유롭고(시행, 수필, 편지 등) 독자 만평, 독자 사진도 받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까지 학생회관 2층 학생 기자실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독자 만평



불인 곳이 없으니...

(자연·화학2 허은철)

라고, 일종의 어색함이나 구차한 등을 느껴 차를 같이 타라고 손을 흔들거나 부탁하는 일은 드물다.

작년에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하루는 무척 급한 일 때문에 기숙사에서 어딘까지 갈 일이 있었

다. 시간을 맞추려면 걸어서는 도저히 안될 형편이었는데 다행히 한 외국인 교수님이 차를 태워주셔서 약속에 늦지 않을 수 있었다. 그분은 그 이후로는 다시 보지 못

작지만 아름다운 학교

우리손으로 가꿔야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말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는 작아도 아름답고, 나는 이 작은 교정을 사랑한다. 잘 정돈된 교정의 풍경을 보면 일 자그마한 교정은 바로 나의 집인 줄 느낀다. 학교는 바로 나의 집인 줄 느낀다. 학교는 바로 나의 집인 줄 느낀다.

그러나, 교정 곳곳에 가문적 보이는 오물들은 나에게 유일한 친구를 빼앗아 버린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모든 외대인들의 자각을 요구하며 글을 시작한다.

첫째, 교정 곳곳에 보이는 담배꽂이를 어느새 강요까지 침투해 있는 상태에서 청소하는 아저씨들의 불평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심지어 강의실 안에 담배를 하는 것이 이상적(?)까지 경고도 있다. 심지어 강의실 안에 담배를 하는 것이 이상적(?)까지 경고도 있다.

둘째, 학교에 늦게 오더라도 노천 극장만 보면 그 날 집회가 있는 것을 흔히 알 수 있다. 문화 공

명수당



김정위
(이만아과 교수)

먹고 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그 방법에 관심을 두어 실행하는 이는 드물다. 커피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먹고 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지는 습관을 삼을 것이 가는데 중요하다. 나 자신도 실행을 못하는 일을 남에게 권장하는 것이 꼭스런지 판심만은 비교적 오래 지고 있었기에 몇자 적어 보고 싶다.

대우 내 스스로 그 중요성을 깨달은 것도 아니다. 어느 때 우연한 기회에 남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그 집의 생활 습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보니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 집을 떠난 후에야 그때의 삶이 규칙적이었

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독일에 유학을 한답시고 머문 6년이란 지나서도, 박사는 물론이요 마구리하는대 정상을 모두 손과 있을 때였다. 공교롭게도 이때 나의 지도교수까지 차를 타지 않

아저씨! 무엇을 가지러 오셨습니까? 저희는 줄 것이 없습니다. 「복수」밖에 -왕산 반미일꾼-

개는 절제해도 주인을 물고 못 해죽어도 안.

방사능 많이 먹고 부어 나요

그 좋은 팀스피리트(팀정신) UR협상대 발명해봐라.

금강산 태풍작전.

T-S는 만자당은 공화국이 노대수 있는 T-S는 명목이다.

계속 열심히 수고하세요.

너에게 가 일어나 보라.

재용이-

증언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명단'이라는 게 계속 저들을 받고 난후에 시험은 내가 재학중인 대학에서 보기로 결정

했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서 마땅한 방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전월세로도 내 지도교수에게 머물 곳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주인은 바로 정년 퇴임을 앞둔 정도

에 달한 신학 교수였다. 전화로 인사를 올리고 들어갈 날짜와 주소를 주고 받았다.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니 방을 보여 주기도 전에

아침 식사상 평일에는 오전 7시, 점심은 밖에서 먹어야 하며, 저녁은 8시 7시이고, 일요일에는 아침 8시, 점심 12시만 저녁 7시

라고 하면서 나는 식사 시간마다 10분전에 와서 밥상 차리는 일을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 다음에 몇가지 질문을 던졌다. 아침

에 커피와 홍차 가운데 어느 쪽을 마시며 또 몇몇 정도나 마시게 하는 평소의 정도는 얼마나

고 올렸나. 내가 홍차를 마시는 데 두세잔 마시고 빵도 두세조각

먹는다고 답하니 그 주인은 각자 선택과 배려로써 기뻐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내기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7시 10분전에 식당 방으로 나가 보

좋은 습관은

삶의 밑천이다

니 부인께서는 이미 커피와 홍차

주전자들을 준비해 두셨고 빵을 차

로고 있었다. 나는 석구 수레로 수와

침침을 차려 놓았다. 식사상에 보니 모두 자기 분량만큼

먹는 것이었다.

나중에 난 일이지만 이 노부부는 절친한 후 한 평생을 식사 시

간, 양을 조절하여 지냈 뿐만 아니라 감자는 삶은 다음 서로

맛있게 나눠먹는 것이다. 즉 밥 10시에 잠자리에 들어가 누워서

독서를 한다. 저녁,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한 평생을

건강하게 또 평화롭게 지내라는 것이다. 때때로 친구를 만나거나

일이 있으면 꼭 지인 친구는 없

지만 끝까지도 친절로 자기에게

습관으로 돌아 간다는 것이다.

오랜 독인 생활에도 독인 가정에서 살아남는 이유는 이

후 독인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들의 모두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당한 수는 자녀들에게 먹고 자는 습관을 지니고 있을

을 잊고 있었다. 즉 가정교육에서 먹고 자는 습관도 어느 정도

예절과 절도가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소위 선진국에서는 공적생활에는 자유의 폭도

한 넓지만 또한 철저한 의식도 강함을 엿볼 수 있다. 더구나 개인

의 사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사실은 우리가

명약관화한 사실

명약관화한 사실

명약관화한 사실

독자 여러분.

학보가사에 피해·항목화를 비판하는 내용이 실리게 되고 기사에 있는 광고

란에 「변경자」등의 선정적인 영화선전

스터가 실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까요?

학보사기자들이 온 열정을 쏟아 재

한 신문은 바로 독자여러분들에 의해 휴

지조각처럼 구겨져 버릴 것은 명약관

화한 사실입니다.

광고는 지면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광고는 지면의 1/3로 대학 언론인이

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학보지면에 독

자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광고주에도 독자대

중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어야만 합

습니다.

광고는 지면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광고는 지면의 1/3로 대학 언론인이

외대학보 광고 이야기-두번째

그러나 과거 대학신문에서 광고는 독

자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보다는 오히려

광고주와 광고대행업체의 이해와 요구가

절대적 지배를 받았습니다. 대학의 이

념에 맞는 도서·출판·문화·정보 내용

보다는 비윤리적이고 비평적인 광고가

행하면서 심지어 대학신문광고가 일부

악적 광고대행사의 이윤창출도로 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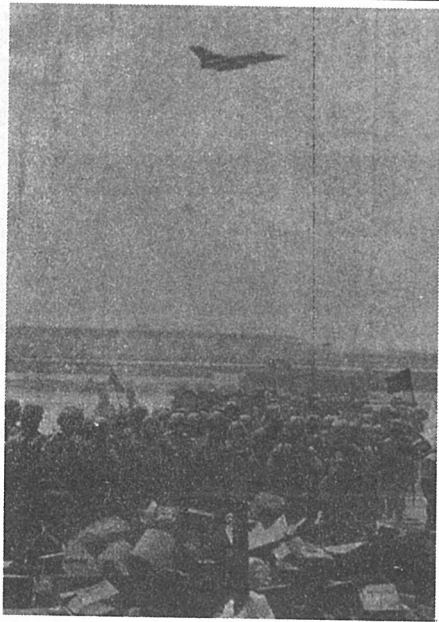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전국대학신문기자들은 지난 89년

부터 신문에서 광고는 지면의 1/3이며

대이상 악적 광고대행업체의 이윤창출

도로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다한군과 공군기지에서 이동중인 미군병사들
(사진:한글보)

변상칠

(대학원 아사지역학과 석사과정)

미국의 세계전략(Global Policy)은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자국의 모든 국가와 민족, 즉 사회주의 국가, 발전도상국,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를 모두 그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는 미국정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정책의 총체이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자본주의 진영의 패권국으로 등장하면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호한다」는 냉전이념을 로를 그 출발점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전략은 그 성격상 공산주의를 통해 전세계에 걸쳐 미국의 이익유지를 그 목표로 하는 군사정치적 전략이다. 냉전시대와 미소냉전시대는 물론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세계무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상실한 오늘날에도 미국세계전략의 본질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같은 오늘날의 군사정치적 군사전략의 본질을 살펴보고 그것이 제3세계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세계전략 결정요인

미국의 세계전략 결정요인은 크게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내적요인은 오늘날 미국의 내부의 특징과, 대외정책이 타당하고 있는 군사전략의 역할과 우위, 변동하고 있는 지배층의 성격을 들 수 있다. 외적요인으로는 소련을 비롯한 기존 사회주의진영의 움직임,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그리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고 있는 독일, 일본등을 비롯한

사구자본주의 국가와의 역관제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군주주의화를 가속화하고 군비확산(이하 군확)정책을 격화시켜 국제평화를 악화시키는 계기를 갖고 있는 군산복합체이다. 미국의 역사적 코어스트리니 「군산복합체」는 패권주의적, 침략적 대외정책과 치명적인 군확정책을 영속시키는 가장한 만한 세력이다. 그리고 세습하고 있듯이 무기생산에 관련된 군사적 엘리트와 산업계의 복합체는 미국의 권력구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강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냉전체제유지를 그 본질의 본질로 삼았던 군산복합체는 유망지역의 냉전체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고 있다. 오늘날 부시정권이 직면한 미국경제의 침체는 군산산업이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도로 비례해선 안 되는 이유를 유추 강화할 냉전체제가 해체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더욱 악화일로에 놓여있다. 결국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미국군산복합체의 이해가 시대정신의 변화된 세계질서에 대응하여 추진되고 있는 부시 정권의 군사전략에 결정적 반영되어 있다. 그 실례가 이번 걸프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행동이다.

미국의 군산산업과 군사 전략의 변화

전후 40여년간 미국경제는 철저한 냉전 경제구조의 형성을 통해 지평되어 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기업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인 군산산업이라는 사실에서 시사되듯, 미국경제에서 군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 이처럼 변화된 경제에 군산산업은 미국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며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성당이자 불리한 무역적자와 재정

부시정권의 군사전략과 제3세계

적자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미국 경제는 지나친 군비지출로 인해 재정적 경직화되어 있으며, 재정적자주의 인하여 자본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해외의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데, 고금리 정책은 실비부자를 저해하며 낮은 실비부자는 생산성을 저하시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 때문에 무역적자가 중대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제의 군사화가 추진됨에 따라 민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민수산업부문이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자국이 군사비 지출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군비를 줄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이러한 부담을 외국에 전가시키고 제3세계에 대한 무기수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택하면서 군사적 패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핵군축을 통해 유지되어 오던 유럽지역의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미국의 세계전략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선, 냉전체제의 해체로 인하여 그동안 미국측의 군확 이데올로기 역할을 해온 「소련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미국에서는 국방정책의 변화요인과 국방비 삭감 압력이 증대되었다. 또한, 유럽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사적 위협이 후퇴하여 지난5년간 미국의 맹주 역할을 해온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체제가 본질의 위기에 처하고, 유럽지역의 새로운 공동안보진전(SCSC:유럽안보협력회의)의 결성이 구체화됨에 따라,

월스트리트 은행가의 아들 부시는 CIA 국장으로 활약했던 경력답게 미군수산업의 강력한 대변자가 되었다. 초기의 소련의 외교공세 앞에 수세에 몰리는 듯하던 부시는 89년말에 파나마를 전격적으로 침공함으로써 그의 세계전략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부시의 군사전략은 제3세계의 군사적 긴장 증폭을 발판으로 지역전쟁을 수행한다는 소위 중강도전쟁전략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몇가지 기본전략을 수반하고 있다. 첫째, 레이건 이후 추진되어온 「힘의 우위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소련이 계속 가중할 군사대국으로 존재할 것으로 기존의 군사불균형체제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억제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유사회, 자유시장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소련 및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을 서방진영으로 흡수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기본전략에 미국은 NATO 및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재편하여 세계의 지배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즉 미국은 소련의 전략적 근대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략적 공격능력의 근대화와 SDI(전략방위위장)를 유지할 것이며, 앞으로 NATO와 미, 일 동맹의 형식으로 미국주의의 신질서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3세계에 대한 군사적 지배, 정책을 강화하는 군사정책을 추진하면서 제3세계에 위협분쟁지역이 상존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3세계분쟁에 직접 개입하려는 본질의 이유는 핵무기와 대대적 무기의 판로를 제3세계로

몰이 되지 못할 것이다. 종전후 미국의 경기회복에 대하여 미국정부가 조심스런 낙관론을 내놓고 있지만 대다수의 경제분석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이런 전쟁에서 거둔 성과중의 하나는 부시 대통령이 전쟁승리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말한 것 처럼 「베트남 증후군」을 영원히 아라비아 사막에 묻어버린 것이다. 참전 부시 행정부가 사우디에 파병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미국에 반전운동은 부시의 세계전략 수행에 어느정도 장벽으로 작용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과거 20년간 미국군주주의 세력을 괴롭혀온 「베트남 증후군」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앞으로 미국은 이런 전쟁과 유사한 국지전은 물론,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별다른 반대없이 감행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해게모니가 쇠퇴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미국학계는 물론 한국의 진보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논쟁은 대부분 미국의 급속스럽게 해체모나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면에 분명한 증빙된 사실은 미국의 국가이익은 예나 지금이나 군비증강을 단순히 일시적인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조정,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군비증강의 논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쟁으로 외화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걸프전쟁에서 미국군산복합체의 욕구는 일관적, 일관적 같은 선전 자본주의 국가들과 금융국들의 진비부담을 통해 분출되었다.

만약엔 누구나 느꼈으리라 생각되는 점이 있다. 한국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미국에 대한 분석서나 논문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다. 국내에 소개된 책들은 주로 일본이나 소련학자들이 경제주의적 측면에 치중하여 미국의 쇠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해게모니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 측면을 모두 포괄한 총체적 개념이다. 우리는 미국의 해게모니주의를 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3세계로 전락한 미국이 무기, 통화, 물자, 자본, 세계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올바르게 보아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전면이 자체의 경쟁력 쇠퇴(일본의 부상은 절대대라기 보다는 상대대이다)때문이라기 보다는 기업의 다국적 기업화로 인한 자신의 공동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특화력의 66%(1987년 기준)를 독점하고 있는 기술대국이다.

미국은 걸프전쟁을 통해 세계 석유를 장악하였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유럽, 일본의 입지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소련이라는 경쟁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제3세계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미국이 전인까지 주목할 사실은 현재 미국이 유고, 체코, 폴란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자본주의화 포섭전략이다. 미국은 이를 국가를 1993년경 EC로 통합시킨다는 계획

세계시장 확보위한 군산복합체, 제3세계 긴장심화 작용
종전후 미국경기, 낙관론 보다 회의론 우세

미국의 가장 커다란 군수산업이 위태롭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군산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기반 자체가 위태로워졌다. 부시 정권은 「소련의 위협」을 「지역분쟁의 위협」으로 대체시키고, 제3세계국가들에 대해서는 무기 판매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유럽에서의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인한 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해 제3세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증폭시키고 이를 토대로 한 시장확장을 증진내용으로 하는 부시 정권의 군사전략에 결집함으로써 그 생존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부시 정권의 군사전략

미국의 정권은 대기업의 대표, 특히 군수산업과 관련된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력구조는 경제엘리트 내부의 합작을 보여준다. 이런 걸프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외정책결정에 있어 그들의 의견은 매우 결정적이며, 그들의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 하고 있다.

핵확산을 통해 군비확장을 추진하는 군사전략을 수행한 레이건의 뒤를이

확대재생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미국군수산업의 생존은 제3세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고 신대명제분위기로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미국의 해게모니와 제3세계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 최초의 국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걸프전쟁에서 완승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세계를 지도하는 유일한 초강대국의 위상을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이 과연 이런 전쟁을 계기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세계대권을 장악할 수 있을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미국정부는 전후 무대에 복귀시장을 거의 독점하여만 대 이대 중동 무기 판매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걸프전쟁을 경기부흥으로 연결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걸프전쟁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일정정도 기여 하였지만 그동안 미국에 누려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별다른 도

향후 부시의 군사전략은 한층 보강되어 지속될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통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맺는말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

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전략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개방농정, 농촌경제 파산선고

6공화국에 이르러 계속되는 농업정책변동과 무수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오늘날 노태우 정권이 말하는 소위 「복지농어촌」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온 우르르파괴된 협상과, 그것의 결렬로 인해 미국에 수입개방 압력을 가하라고 있다. 또한 지난 90년에 발표한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은, 이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농촌 경제를 해체 위기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6공의 반농민 농업정책과 이후의 농민들을 폭로하면서 오늘날 파괴된 농업에 있는 농민의 현실을 적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농업·농민의 전면적 위기

80년대 이후 부패비이론 미국의 쌍둥이 적자무역(경제적 자)로 인해 현재 미국은 쌍둥이 협상을 통해 한국에 전면적인 수입개방압력(비교우위산업에 대해)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특정세력은 미국주도로 추진되는 국제적인 우르르파괴를 적극 수용하여 특권계층을 강화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도 농민들은 농민을 해체하고, 거침없이 유지를 위한 농민을 수탈하여 국제적으로는 통상수탈을 피하여 수출주도형

역성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촌을 지키려는 청년들은 결혼조차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노태우 정권의 농업 정책은 무엇인가?

농업, 농민문제의 악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멀리서 보면 해방이후 미영농업을 도입에 그 뿌리를 두고 기거하는 70년대 말부터 추진한 협상을 수입자유화 정책과 80년대 개방농정에 그 직접적 원인이 있다. 특히 70년대 6공에 접어들어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맞는 농업구조개편이라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하 「농발대」)은 농업의 전면 개방을 전제



정부는 농업정책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수입개방을 중대하고 있다. (사진: 91년 보도연감)

89년 4월 8일 89~91년 2백43개 농가에서 걸쳐 3년간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한 농산물 수출입 자유화 예시계획과 보완대책을 발표한 89년 4월8일 이후 정부는 4월28일 「농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후 90년 3월 16일, 농발대법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관리 기금법」이 국회의 농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4월 7일 제정·공포되었으며 5월11일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고, 농림수산부령인 시행규칙이 예고된뒤로 농발대가 90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90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농업정책에서 확인되듯이 농발대의 핵심내용인 수입자유화, 농산물 가격, 가격제한 정책은 전제로 하므로 농업소득 증대정책은 완전 포기한다. 농촌공익화를 중심으로 한 농민소득개방 정책은 농업의 중심을 이룬다. (93년 3월50개 농가단위 1355백60개 부업단위 2백50개 관망지 조성)

다섯째, 노동농민이 있는 빈농들은 농촌에 남아 농촌공익에서 벌어 먼도목하여 대외적으로 수입자유화한 농산물 수출입 자유화 예시계획과 보완대책을 발표한 89년 4월8일 이후 정부는 4월28일 「농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후 90년 3월 16일, 농발대법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관리 기금법」이 국회의 농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4월 7일 제정·공포되었으며 5월11일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고, 농림수산부령인 시행규칙이 예고된뒤로 농발대가 90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농발대의 대전제는 수입개방에 있다. 이러한 농발대는 미국과 국내특정세력이 벌이는 「구조조정」을 정치적 시행방안으로 장기집권을 누리려는 민자당, 노태우 정권의 농민말살

조작된 공명선거 공안정국 연출

압력에 의한 후보사퇴 선거의미 상실한 국민기만책 민민운 광역의회 후보단일화로 향후 정국 주도권 쟁취

수서비의 사건이 자신들이 의도하던 정치권의 재편을 추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여파가 청와대까지 확산되는 것에 당황한 노태우정권에 의해 선출된 3.26기초의원 선거는 처음에 상징되었던 「플루티」의 주주의, 라는 의미를 상실한 채 공안, 관권, 온갖 협박선거로 유선변의 통제선거와 같은 의미로 축소되어 버렸다. 또한 현 정권은 선거공안과 공안정국의 수레를이 속여 가자기 두면서 선거운동 내지 정당개발 등을 급진적으로서 정치권과 선거를 민자당 정권에 의한 철저 압력선거, 공조선거로 만들어, 지지자의 정치적 의미를 이미 상실시켜 버렸다.

결론정전 이후 계속되는 공안정국속에서 민자당중심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시켜왔던 현 정권과 미국의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위한 권력재편에 모든 신경을 쏟으면서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공격 훈련인 톱스타미르를 내외의 반대에서도 강행하며 한 번도 전역을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노태우정권을 부추기면서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권력재편에 있어서의 전초적인 골격지는 91년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갖은 모략을 하여 결국, 이번의 지자체 선거 기술 불리 실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권력재편의 주도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속에서 정치적 무정부주의적 경향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 국민의 정치수준에서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정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 본다.

이러한 예측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근거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낮은 투표율이라 할 수 있다.

유세장의 냉랭한 분위기, 호별 방문 금지, 정당 참여 금지 등으로 인한 전반기 선거불가피의 후속과 총 4천344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매일 20여명의 후보가 사퇴를 하고 6월 60명의 후보가 무효로 당선되는 사태 등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기권자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태우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선거가 정치적인 의미를 갖느냐는 문제는 우선 투표율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저조한 투표율이란 바로 국민들의 무관심속에 진행되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번 선거 역시 공안정국에 의해 주도되는 관권, 부정부리로 치부어 졌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의 부정부리로 정치적으로 각성된 국민대중들은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이번 기초의원선거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준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선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성격으로 보아, 향후의 정치일정을 계속 밀어 부치면서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통해 내각제 개헌 등을 실질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초의원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앞 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헌정권과 미국에 의한 연이은 대우정변, 민비전, 경수 노론 등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은 우선은 입부를 앞둔 당국의 연대적인 탄압으로 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92, 93년도의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전개되는 탄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공안정국의 분위기가운데서 정권의



이번 기초의원 선거는 관권에 의한 온갖 부정부로 인해 선거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선거발미로 민민운에 대한 탄압 강화 광역의회, 국민 정치의식화 장으로 활용

앞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급진선거운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대선 압력에 의한 후보사퇴가 속출했으며, 공정한 선거운동을 금지 시킨 채, 후보자를 방어지로 만든 현 정권은 이번 선거 결과 여하를 떠나 그 부정부리고 파쇼적인 작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국민들로부터 요구받을 것이다.

이번 선거처럼 정치적 색채가 철저하게 배제된 선거는 일찍이 없었다. 즉 정권세력들의 선출하는 선거에서 매일 20여명의 후보가 사퇴를 하고 6월 60명의 후보가 무효로 당선되는 사태 등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기권자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태우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선거결과(민자당의 형식적 승리를 무기시한 광역의원 선거 결과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일정을 강요할 것이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 여하를 떠나 그 부정부리고 파쇼적인 작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국민들로부터 요구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선거는, 현재 광역의회는 5, 6월로

선거공안을 독점하고, 장기집권요인 내각제임의의 포박을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은 필연적인 것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사소한 치이를 극복하고 헌정권과 미국의 탄압을 분쇄하면서 광역의원 선거공안에 대중선전의 공간으로 전위해내고, 나아가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민자당에 대한 전국적인 거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향후 정치일정을 자주, 민주, 통일, 발전의 앞날을 삼을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 순 통
(전국민주노동운동연합 선전부령)

농발대, 농업생산 감축과 빈농의 탈농화 가중되는 수입개방 압력으로 농촌의 해체

공익화로 특권계층을 확대코자 한다.

오늘 이렇듯 농업, 농민, 농촌은 사상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80년 마늘과동, 83년 고추, 양파와동, 84~86년 소와동, 88년 고추와동, 89년 감과동, 90년 무와동등 전작목에 걸친 주기적인 가격폭락 사태로 더이상 지어볼 농사가 75% 140.4%에서 88년 116.2%로 경지이용률은 대폭 줄어들었다.

75% 73%에서 89년 42.9%로 떨어진 식량자급도의 급격한 하락과 89년 11.5%로 증가한 전농민의 부채증가와 빈농의 증가, 그리고 소작농으로의 전락이 많아 오늘날 농촌의 현주소이다.

로 하여 이미 파괴될 대로 된 농업을 완전 해체하고 농민을 축출하는 대장소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70년대 말부터 추진해 온 개방농정을 중화하여 제도적으로 구제화하는 것이다. 다만 농민들이 농민을 대우하기 위해 농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구조개편을 통해 상업적 전업농을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농업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는데 그 특징이 있다. 즉 다수 농민을 탈농시키고 부농을 적극 키우겠다는 시책인 것이다.

농어촌발전종합대책 - 농민을 발로 차버릴 대책

농발대는 전업농 육성, 농촌공익화, 농어촌정수원 개발정책을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수입개방 저농산물 가격으로 몰락하는 빈농을 1백80만에서 1백20만으로 탈농시키고 30~50만대로 농민을 「상업적 전업농」으로 집중 육성한다.

둘째, 상업적 전업농의 영농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 (현재 평균 1헥타에서 2.7헥타로 확대)소작농을 합법화하고 농어촌전공농가가 이들에게 빈농의 농지와 부채지주의 농지를 사들이 집중지원한다.

셋째, 전업수입개방에 맞추어 도매물과 쌀, 돼지, 닭, 소 등 육성작물을 구분, 일부 육성작물을 선별 육성한다.

농민들, 농민들만 아니라 국민대중의 희생은 전제로 한 경제정책으로 한국농민의 전면적 해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7백만 농민과 전민중은 전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민족의 정치경제적 자주권을 하루빨리 찾기위해 반민중적, 반민주적 세력에 맞서 미국주도하의 우르르파괴된 협상과, 농발대 지지 부패와 아울러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전변을 형성·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박 미 숙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사업국장)

주.객.전.도

대학신문과 제도 일간지가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제도 일간지는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광고주들에게 그 제정을 의존하지만 대학신문은 학우들이 낸 등록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신문의 광고는 각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제도 일간지 광고는 제비기업의 이윤획득을 위해 존재하지만 대학신문광고는 학우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우들을 위해 존재하는 대학신문 광고는 그 내용이 어떠한가? 여러 기업에 상품 선전이나 이미지 선전이 과연 대학을 위한 것일까?

아닙니다.

건전한 학풍을 전파하고, 외대인의 자긍심을 불어 넣으며, 민중과 민주를 위해 고민하는 대학인들에게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학당국에서 알리고자 하는 각종 광고내용 역시 이곳에 포함되는 물런이요.

대학신문 광고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봐도 되는 것일까?

■광고 우리것 만들기 운동을 벌이는 외대학보 전체 기자 일동

돈을 한 톨이라도 더받기 위해서라면 외대학보가 1년동안 발행하는 308면 모두를 상업광고로 도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기존에 실리던 학교광고가 실릴 자리는 어디일까요?

외대학보에 실리던 면적의 삼분의 일도 못되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수백만원을 주고 실거나 그렇지못하면 못 실게 되지요.

자기 매체를 버티기 위해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다른 곳에 돈 돈을 쓰게 되는 못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대학신문 광고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행 영화시상제도, 바뀌어야 한다

"단지 반미·반정부영화라는 이유만으로"



문화논평

『소신껏 심사할 수 없는 분위기가 저주스럽다』라는 말이 나올만큼 대중상 영화제는 공정한 심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영화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의 촬영장)

휴일엔 영화를 보기 위해 줄지어선 사람들. 영화란 것은 참으로 이데올로기. 이는 영화가 이제 TV나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 못지 않게 그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도 훌륭한 문학 작품의 경우처럼 보는 이에게 강한 감동과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의 의식을 진화·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예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영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몇몇 영화인들은 목적의식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민족영화인들과는 차별적으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고, 지난 한

해 동안에는 그 결과물이 우리 앞에 선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현재 영화계의 한계를 증진시키는 대상으로는 널리 알려진 대중상 영화제가 있다. 그러나 그 해의 우수작품을 선정함으로써 대중상 영화제에 기여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영화인들의 자족적인 잔치에 불과한 「대중상 영화제」가 올해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난 3월12일(화) 치러졌던 대중상 영화제의 내용을 보면 한국영화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 해 상반기 편성상의 고난과 부평의 여자를 그린 영화 「남부군」은 관객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관객들은 오랜 시간과 많은 제작비를 들여 이제까

지 영상화하지 못했던 반미사상을 형상화하며 상영하기까지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사랑과 무정을 형상화하고 있던 영화 「그들」도 우리치립을 보면서 미학이나 앞으로 한국영화의 발전적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이 예선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예선과정에서 영화제 집행위원장의 「반미·반정부영화는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발언은 영화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영화인들의 창작의 자유를 짓밟는 작태인 것이다. 이로 인해 본선에 오른 영화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와 「은마는 오지 않는다」의 두 제작사에서 스스로 출품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본선 심사위원들 한 사람이 「소신껏 심사할 수 없는 분위기」가 저주스럽다라는 말과 함께 사퇴한 것은 대중상 영화제가 얼마나 부정이 난무하며 썩어있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해 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대중상 선정에서 그 '선택'의 기준에 반미·반정부 영화예선이라는 분야에서 내세우는 창작의 자유에 대해서 아무런 담도 들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미개봉작도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의 보비행동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실

정이다. 그 이유는 미개봉영화에 대중상을 받을 경우, 이후의 흥행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중상 영화제에는 2학년이라는 정부 지원금이 독자적인 흥행심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금 또한 영화인들의 물욕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대중상 영화제는 영화예술의 긍정적인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면서 정부에서 원하는 형(?)의 영화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영화시상제도에서 우리 영화계의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자. UIP영화의 적대파로 인해 많은 외국영화 유입되면서 우리영화는 이전보다 더욱 외면받고 있다. 한국영화의 질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필자로서 UIP제에 의해 보도도 우리영화의 질적 발전이 시급히 요구되는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고,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일정한 고도의 진지한 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중상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들은 흥행이나 대중상을 위해 영화가 만들어낸 인물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많은 제작비를 필요로 하는 만큼 상업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영화의 특수성이므로, 하지만, 진정하고 내용있는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관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면 굳이 「상업성」을 염려할 필요가 있을 까?

대중상 영화제에 여러 사정에도 역시 그 위치에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면서 제단을 없애고 공정한 심사를 이루어야 노력을 보여야 한다. 지금은 한국 영화에 있어 큰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올바른 평가와 질적 속에서 민족영화로 스스로 보호하고 성장시켜 나가라는 노력이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서서히 보이고 있는 참된 현실을 담은 영화들은 무거운 양식 토대를 이루고 질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외세와 자본에 저질된 편향을 개조하는데 제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부)

'인간'으로 다가오는 장기수

—연극 「아버지의 해방일기」 공연에 다녀와서



지난 22일(금)부터 해마다 예술극장 한미당에서는 극단 「아리랑」의 「아버지의 해방일기」 공연이 있었다. 첫날 이 연극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민기협) 어머니들이 많았고, 학생들은 그다지 많이 눈에 띄지 않았다. 1백명이 약간 넘는 관객이 자리한 가운데 풍물의 힘찬 가락과 함께 연극은 막이 올랐다.

어둠 속에서 사육가락이 점점 촛잔을 불리 일으키며 무대가 밝아 오면 주인공 김만석이 죽어간 빨치산 동지들을 생각하며 특사에서 제를 올리는 것으로 첫장면이 시작된다.

이어서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특사를 찾아 온 딸 순옥과 김만석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순옥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비전향장기수로 삼십년을 감옥에서 살아 오고 있었음을 놀라며 아버지에게 전황을 요구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옛 친구인 송재현을 만나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식 아버지를 이해해 나간다.

송재현이 했던 일기 내용과 김만석의 회상을 통해 과거의 사실들이 중간중간에 삽입된다. 과거의 일들을 오가는 시간의 발위와 감옥생활·북한까지 설정된 공간배경은 이 연극에서 역사적 근거에 기초한 사실적인 표현에 도움을 준다.

순옥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계속 아버지를 면회하면서 차츰 가족 아버지의 내면을 받아들이게 되고 더 이상 전향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

순옥이 아버지를 받아 들이는 과정은 곧 관료로 하여금 장기수를 다시금 인식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평범한 농민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조명해 가기 때문에 장기수에 대한 인식을 거부감없이 변화시키는 데 별 무리가 없다. 또한 송재현이 가깝게 분회기를 돈주고 민주적 정서를 함께 느끼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연극 도중에 갑자기 울려오는 소리가 들렸으며 연극이 끝나고 민기협 어머니 한 분은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열사의 죽음을 일터 혼을 달래는 것이 한풀이 곳의 의외입니다"



지난 3월 22일(금) 용인 캠퍼스 이문희관 앞 「해방광장」에 모인 3백여명의 학우들은 잠시 긴장감과 신명함에 젖어 있었다. 그(故) 남해진 열사 추모제중 한풀이 춤을 춘 이삼현(세종대·무용과 84) 군을 만나

「열사의 죽음을 알리고자 한 내내 대우로서 파울러 들어간 열사의 죽음의 고향과 상상을 무덤이 재현할 뿐이 열사의 한을 풀고 액을 씻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복이 이 곳에서는 열사의 한을 주는 거리이기 때문에 들이든 것이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이 단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문은 준비기간동안 남해진 열사의 생경과 정경에 대해 돌아서서 모습에 대해 어떤 사람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회상을 담기까지의 시간과 노력을 잊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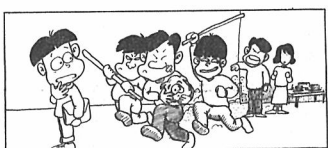
상반적인 문화운동체인 「대우소」의 무대에 맞춰 춤을 춘 이삼현은 생가를 떠나 학우들을 놀라게 했던 것에 대한 질문에 「열사가 사람 몸에서 그대로 죽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물론 재현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은 열사의 익힌 죽음을, 그리고 그 한(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확실히 대답을 미소를 짓는다.

웃을 하는 동안 이유없이 울고 눈물이 흘렀는데 이때 이문은 「복이 이 한풀이 것이 진짜 죽은 어머니라면 남해진 열사의 익힌 죽음을 학우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리고 재가 그 의의를 그대로 살리지 못한 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삼현은 「이삼현이 열사의 한을 풀고 액을 씻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복이 이 곳에서는 열사의 한을 주는 거리이기 때문에 들이든 것이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춤사위가 크고 무악에 있어서도 기교와 강한 휘둘러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삼현의 춤을 춘 이유였다. 이삼현은 「열사가 사람 몸에서 그대로 죽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물론 재현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18



3월○○일 평정환남씨
충학생의 전곡이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91년 도 충학생회는 힘찬 출발을 했다.

언제나 전곡이 있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설레인다. 왜냐하면 고사상 위에 놓인 활자 웃는 돼지머리가 날 즐겁게 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그런 자치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전개해 온 지 올해로 삼년째.

그런데 오늘은 몸이 근질근질한 걸 꼭 참고 앉아 있었다. 이제 나이가 더 먹었고 우배를 보는 앞에서 좀 겸양이 보이고 싶어서... 그래도 우배들은 이상없지 않았다.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생경했다. 다들 자기도 할 줄 모르지만, 서로 다름은 그 모습은 정말 아니었다. 자치하기 열정이 남아있었다.

외대인 이문희 / 지난번 육십과 피쳐한 행동으로 웃으면서 끝이나 할 행사가 열리기 전 작은 모습이나? 적극적인 참여도 좋지만 복귀를 받는데는 행동은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앞으로 있을 단체 출범의 때는 모두 함께 나누어 가지며 나란히 출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문화부)

우리들의 삶 (200)여의다, 여의다

「여의다」는 옛날 「여의다」에서 온 말로서 죽어서 해저를 뜻하거나 딸의 출가를 뜻한다. 「그는 흠이없이 마치 여의고 고아가 되었다. 또는 「이런데 딸을 대신으로 여의었어」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그 예이다.

「여의다」는 「아빠」보다 어감이 강한 말로서 「몸에 살이 빠지다」, 「가난하여 살림이 보잘 것 없다」 「많은 것이 빠져나간 줄 어둡다」등의 뜻으로 쓰인다.

태산이 다 걸리어 웃을만치 되돌이나
황후가 다 여의어 떠난지 되었나
그새야 부모형제 다 여의거나 말거나

우체국 금융업무 이용 안내

이젠 금융업무를 위하여 은행만을 고집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국내 우체국에서는 국내 최대의 집포망을 가진 ON-LINE서비스 제도를 개설하여 국내 어느 곳이나 바로 앞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예입, 저축, 송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직도 우체국 통장이 없으신 분은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오시면 전자접합통장을 개설하여 드림터 또한 우체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편리한 제도가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채신예금

- ON-LINE 전자접합통장 전 우체국 취급 전국을 대상으로 ON-LINE 즉시 송금(은행보 다 저렴한 수수료)
- 통장하락으로 각종 예금 거래 금액의 자동납부
- 금여예
- 가까운 이웃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

둘째, 세금 공과금 납부

- 모든 국세, 지방세, 공과금

셋째, 우편 주문 판매

- 전국 명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시는 주소 까지 배달(고향의 맛을 그대로 전해드리며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도 가능)

넷째, 채신보험

- 목적에 맞는 다양한 보험
- 뛰어난 위험보장 손쉬운 목돈 마련
- 결혼자금, 주택자금, 여행자금의 목돈마련을 위하여
- 자녀의 앞날을 위한 교육자금을 위하여
- 안락한 노후 생활자금을 예치치 않은 각종 불의의 사고 대비

공 고

제목:결합검사 및 예방검진 실시
본 보건소에서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감염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염(항원·항체)검사 및 예방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 래—

- 1.일 시:검사—4월3(수), 4(목) 1차검진 4월 4일 셋째주 예정
- 2.실시방법:감염검사 및 3회예방검진 (1차검진후 1개월후와 6개월 후)
- 3.대 상:교직원-감염검사 및 추가검진 재학생-감염검사 및 예방검진
- 4.금 액:검사료-1천400원 1회검진료-6천200원
- 5.지정회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약사 지약회사
- 6.신청방법:감염검사를 희망하는 교직원 및 학생은 4월1, 2일(9:00-17:00) 까지 보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검사료 납부)

서울캠퍼스 보건소

3496

기동취재

터와 끊임없이 오가는 통신대차량 및 장비 이동중 파손한 도로를 매꾸기 위해 움직이는 덤프트럭들은 T.S.훈련의 규모가 실제로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탱크의 우단전입을 막기 위해 원천포 도로변에 있는 한두리길에 나무를 울타린 후 군내교에 대낮에 놓았다. 또한 60%에 달하는 농작물 미군탕까지 밟고 지나가며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하여 도로파손은 물론 농경지상의 유실을 안고 있다. 양귀리의 흰 복색이에서는 프리드리히 포장도로 위를 탱크가 지나갈수록 도로가 완전히 파헤쳐져 비탄 경우도 있다. 미보장도로와 탱크주행으로 인한 모래바람과 탱크주행은 농경사상의 요인도 작용한다. 이제 대낮에 양귀리 이장 주노반(38)씨는 "대형철 지난 노닐양귀리에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다 양귀리의 탱크를 보고 놀라서 핸들을 놓치는 바에 더 엄격하게 사냥을 일억되도록 했었지요"라고 말한다.

는 “금슬”을 치질뫼쥬쥬.
런데 오후를 댕지 집에 오보나
집앞에 딱씩 돌기 시작하던
마늘밭이 파헤쳐져 한정이 생
겨날 정도였고 그 구멍이에는
시료를 잡종과 비닐등 온갖 쓰
레기로 매꿔져 있더군요.”라고
그 때배상을 말한다. 미민텔
크 2대가 밭에 들어가 회전을
하는 바람에 밭이 완전히 곱퐁
게져 버린 것이다. 당시 주민
들이 손짓발짓으로 “먹을 것

서를 끊지 못하는 경우는 보상이 없고 꾸고 있는 집니다. 미군 같은 경우는 말이 안통하니 말을 걸아 통गे도 보상받을 길이 아예 없는거죠.라고 말하는 김주남씨의 말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 피해를 제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또한 상당하다. 농사일에 지친 주민들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굶은 이에 안

터와 끊임없이 오가는 통신대차량 및 장비 이동 중 파손한 도로를 매꾸기 위해 움직이는 덤프트럭들은 T·S훈련의 규모가 실제로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SJ스파인리프터에 있어서는, TSC와 TSJ를 모두 도입하고 있는 탭과 접합하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서는 양의 계통상의 오차를 줄고 있다. 양리프터는 탭이 높은 비표준값에 탭을 일련로 도열시켜 높은 비가동인 탭과 TSJ가 온도차에 의해서 탭과 TSJ의 계통을 같게 하는 이러한 접합값에 탭가 주름해 아끼는 불균등도를 약간 사고있을 일당아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TSJ가금속적접점 지점을 포괄화해 불균등성이 적은 TSJ의 두께 상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한다. TSJ가금속연재는 갑자기 사가 발생하고한 그중 불균등과 불균등에 대한 피해는 특하고 있다. 양리프터 주연인 양리프터(4)의 경우 「당시 지점접합」과 「모두 탭에 나기 있어 탭과 불균등」이 불가능하

[illegible][illegible][illegible]

『제비』는 거지
『야』
고
비
『제비』를 이디서 온 사
책망처럼한 군인의 모습
희대 학생회장 김병철(2월
군의 특수사) 지난 2월
스에서 열린 신협상 준비
틀째 7년 날
침, 향상에 올랐
유엔원래조 전임
로에서는 50여명
남짓한 하국판인 생
물이 조프의 지
치며, 주장을 외
치며, 일종의 기교도 하고,
다 누웠다가 뛰었다
합한 훈련을 받고 있
을 거 같습니다. 내
귀에 들리면 모양이
이렇게 시작될 것 같
4년가까이 계속 되면서
말씀을 하고 주인의 몇몇
다는 조프에 의해 일단

무사통과(

면 으레 재기되
문제제기는 비단
극소수 사람들.
북소리도 아닌
가야로라도 가고
어찌 되고 한다.
서 행해는 학
시에게들은 참을
하지만 수습중

조직이
의 건진
나 요배
화비 바
꽃에개
리는 한
한이
미각
인간
적 그

)의 예절

덜할심 북도, 심
에서 타파수를
하는 행위
다르므로, 풍관
만치니, 한국문
를하여 지킴은
필요이다.

한을 「태도호
로 공물인 것을
한 국사회칙

는 겁에
그런
이전
정당
한이
경에서
예 세워

사리지고 '지구적 학생회'를 이끄는 대학에서, 누구는 군대에 가서 조차하는 편이 낫지 않은 것은 '대내 학내'를 수 있는 '총성' 소문 전 생애를 봐 필연이고, 누구는 군대, 생애이다. 자주적인 것은 대학에서 학생회와 교조적인 '총성'과 '지구적'을 지우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아주 멀리서도 수관이나 브라운의 우렁차게 '총성'을 외치는 무사적(7)을 할 수 있고, 말한 한 줄은 사냥터나 해안지점이나 전야의 모습, 장군(將)으로 보는 '민주주의'를 지적하고

국민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국민을 교육하는 모든 국민들의 관습이 남아 할 때이다.

(이희용 기자)

모입니다!

전국의 백만 청년학도 여러분! 과거 5공시절 학생운동탄압의 일환으로 자행되었던 강제징집이 이제 6공화국에 와서는 합법의 탈을 쓴 채 다시금 공공연하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식민권력 구축 성찰사

병해와 전염 등 하나의 아수안으로 92~93년 필리핀에서 병을 앓고 있던 군에 복귀하여 병에 의도해 89년 3월 10일 시베코를 개장할 시점(이후 92년 1월 20일 개장)에 협도 이기에 굳이 시한고교 교수로 90년에 정년하는 원형(92) 개장정지인 92라고 언급한다.

이후 중국 광둥성에서는 91년 1130호 중국수출부보에서 병에 걸린 이의 출생 2년보다 많아 연간 5만여명이 입국하여 못하고 병원에 계층을 만나야 보충소속이 면제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토록 병정원이 남양이라 '미 입국자 전선현장'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 전 임명령을 제출한 자들이 병정원 장이든 해를 지니기 기다려야 입국이 되고 있는 원인을 추적하면 육류 수산권 중국수입성방비사업에 줄조

제반 후보생(ROTC, RNTC)

무관 장교 지망자는 본대 입영단과 다른 대외적 임박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에 결원예정자의 권리로 자기계속하는 등 정상적 학업기간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일정 요강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 경우 ROTC 후보생이라는 군복을 지급하여 가산점이나 함포도 불거지고 전혀 일반 병학생과 차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정장은 ROTC를 들어올려 학생용 세트를 입히고나 학생들끼리 단열을 조정하거나 학생단위 간부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한 ROTC 학생들에게 강제징집비로 벌칙부과된 채되는시키는 작태는 소수의 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 보충역(방위산업체 노동자, 공중보건의, 초등교사, 선원)**이 폐지되고 복제보충역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이세도야 운동 참여 자제를 병행하게 하는 제도도 강구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체 복제보충역 노동자의 경우엔 만고사치 금지, 혹은 해고보충역에 가입조건을 약화하고 영장이 불부여이 대대를 감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복제보충 5만명기준 4만을 근무했으며 임의지급 3개월의 군복무를 치루후로 다시 당국에 하는 기준도 있어 이는 병역의무를 면한 노동운동 민생, 해외의

녹화사업이라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의 정치적측면도는 분명합니다. 이는 92~93년 권력세권기를 앞두고 조국의 자주·민주·평화라는 광대 헌신적으로 써온 청년·대학생들을 정치적·경제적·문화적·교육적·정치적·군사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나라 개입을 통해 발전시켜주는 움직임이다. 대거 정치적특복에 이어지는 각종 특혜들은 보복의 의미, 파괴의 의, 위문사들로서 열락했으며, 앞으로 경제 정책들에 대한 정치보복적 단언은 불을 뿜듯 한 일입니다.

또한 천하 회망, 자만분, 전진현명등 일련의 사건에서 다수의 언론들도 포함되어 있었어, 정경의 위기시 황 상 그래데이션도 또 하나의 기적적 조작성으로 조국 근민, 교육의 혼란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리까지

전국교의 백만학도 여러분! 이러한 정치적요소를 갖고 있는 6공식 강제징집의 대상자는 비공식 집계로 6백여명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인적 해결(입대, 연기, 기피등)에 머무르고 있고, 사회적인 공동대응이 있었지만 현재조차 계속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언합니다! 합법을 빙자한 6공식 강제징집의 문제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 할때 이러한 일방적 고통을 창출하는 원인이 사람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시대의 의의와 뜻을 수렴하는 우리의 백만방오와 민족민주정신을 그리고자 할 일정을 갖고 있는 모든 화합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투쟁할 때, 우리의 투쟁은 미노-노노의 합법을 넘어서 6공식 경제정치의 실차와 조도, 정권의 반민족성을 적극적으로 폭로하며 그에게 숨어 있는 민중의 정치적 음모를 조지적·대중적으로 분쇄해 나가는 반독재 투쟁의 외의를 가지며, 강경대상 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국민적 인예속, 분단성(반 통일성), 비현실성을 바르게 인식, 개선하는 속에서 참다운 민족민주의 근대 성취에 이르기 위한 선전적투쟁을 통해 민족주의에 부합한 새로운 길을 걷는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 언론의 서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강제징집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

본 「대책위」는 대상자 여러분의 회비 5,000원으로 운영됩니다. (계좌번호:국민은행 815-24-0221-294 예금주:이원주) 연락처(강집신교센터):서울(02)961-4447, 서울시 영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교회관 708호 부산(051)817-6460

공·트

무투표 당선이라고?!

○○○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인 이재구씨는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 지자체 기초의원 선거에 임후보이기 때문이다.

저급 이재구씨는 ○○○ 도 예비 시장에 가고 있는 중이다. 이세는 주된 몇몇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몇몇은 호감을 가지고 한표 찍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영 신경을 곤두세운다.

또 같은 후보로 나온 정만택, 최용국씨는 집권당의 후원을 끈끈히 받고 나온 사람들이라 이간 신경쓰고계는 아니다.

「인물로 봐도 내가 제일 낫고...」 도대체 모두를 어떻게

영양한 표정인지, 전... 속으로 한마디 하면서 이재구씨는 만점을 돌려 복귀하는 시종으로 돌아간다. 그 부류의 일정한 절차들을 걷는 데 주위 사람들은 지나가듯

관심거리고 있는다. 주위 사람들이 웃던 말인 이재구씨는 한발 한발 천사(天)를 그려가며 걷는다.

「이이구, 안녕하십니까?」「장사는 잘 되시나요? 요즘 물가가 좀 올라 손님들이 많이 없지요?」

「예, 원래 장사가 그런지요. 그런데 누구...?」

「아, 예, 저는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 임후보한 기초의원 이재구라고 합니다. 뭐, 무슨 말, 무슨 당입네 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쪽 지역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선되니까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을 추궁도 있고 20년 동안 살면서 봐온 우리들 지역문제들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말하고 나서서 해 보려고...」



「예, 그런 2마리에 천원입니다. 가져가세요. 그럼요. 성실합니다. 아유, 다른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중 저의 집생선은 크고 좋은 놈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초의원인데...」

「예, 정말요? 몇마리냐? 네마리요. 하하하 얼마냐? 모두 2천원입니다...」

생선사채 주인은 고등어 4마리를 올려주고 도마위에 놓았다. 그런데 생선사채가 움직이며 비린 물이 이재구씨 양복에

떨었다. 순간 이재구씨의 양복이 잠시 변하더니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이이구, 평소라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절로 그늘 아니지, 참아주세요. 공한놈이 어쩔수 없지?」

「이이구 주 ○요일이 선거일이데 이것 보시고 포곡...」 하고 자신의 얼굴이 썩은 팔뚝을

나머 주위로 내밀었다. 그런데 이재구씨가 주인, 신경

했다. 또 오세요...하며 손님에게 눈이 가 있다.

「이제 다 됐잖아. 으휴, 왜 이리도 힘드냐...」하며 다시 한 번 말을 건넨다.

「자...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말하고 나서라는 이사람을 믿어...」

「이제 그만... 투표하듯 노력은 하겠습디다. 그런데 뭐 나 먹고 살기 바쁘다 보나...」

「예... 그래도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는 행사해야지요. 믿어주시고 꼭 투표해 주십시오. 기초 X번입니다. 이재구라는 제 이름을 걸고 꼭 지역

발전을 위해 끝까지 일하겠습니다. 장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구씨는 생선사채를 나오면서 이제, 열등대에서 졸라맨 친구 카사장과의 전화통화를

마무리했다. 「아! 이사장님? 나 카사장인데, 어떻게 일이 잘진척되나?」

「그저 그렇게, 정신없이 뛰고 다니는 하지만 왜 그런지 사람들이 이 선거에 흥 관심이 없더라구. 신문부터 방송에

요란하게 떠돌아 다니지만 그거야 생애를 내는거지, 실지 사

람들은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뭐 이런 식이야. 그런데 카사장 제네는 어떤가?」

「아, 내가 그 얘기 해주려고 이렇게 몸소 전화하길 않았나. 난 말일세 당선됐네. 걸렸네.」

「뭐? 아직 투표도 안했는데... 이사람, 그리 갈라 없어가 저구 당선됐냐? 투표도 당선

이란 말일세, 투표도 당선...」

「내가 여당 아닌가, 이사람아, 자네 신은 안 읽냐? 당에서 다 신경 써서 다른 후보들이 다 사퇴했네.」

이재구씨는 내심 부러웠다. 그리고 카사장이 처음에 여당의 힘을 이용하라는 말에

사람들의 여당에 대한 불신이 큰데 그런데 당선되니까도 일촉즉발이겠지. 너무도 후회

했다. 그래도 사람들을 설득시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도 힘든 것이다.

그동안 돌아서는 이재구씨 등 뒤로 생선사채 주인과 카사장이

떠나고 있다. 「이제 그만... 보이면 말안해. 꼭 선거철만 되면

말도 안듣는 지역구입대라는 자들이 더 웃긴다. 자자들

도 속이 팔기야. 평소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던 우리들에게

갑자기 이러니 말야. 불쌍하다. 불쌍하다. 열 등대 누구는 투표

도 당선이라? 그대네 출신 야당후보들이 압력을 받아 사

퇴했다. 잘 들어가는 사람이야. 참, 믿어. 일을 해보라는

인물이 나와서 싸운 꼴을 한바탕 갈아엎어 일한데... 어

때 가서, 이렇게 한 번 해볼까? 하하하...」

그말에 놀란 이재구씨는 발을 헛디디 시장 바닥의 구덩이

이 뛰는 바람에 양복 바지가 찢겼다...」

공 경 식
(정·과·신·반·2)

수서 뿐이라, 총체적 비리

우리가 U-R에 몸이 꼬이고 폐단의 허위에 허덕일 때

저들은 엄청난 자본의 반란을 노려왔다. 삼권분립 가면을 도어린

알광한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을 구워 삶고 의회를 돈으로 쳐발려

만백성의 고통으로 성을 쌓고 표백된 제벌을 양산하였다 백일하에 드러난 추악한 발버둥

머드는 소리가 죽었다는 민중의 신음이, 한마디의 항변조차 비밀 비밀 유언비어이다

평화로운 나라 혼란에 빠뜨리는 과정본자의 책동이란

그것이 저자제였는가 그것이 민의를 앞세운 파렴치한 이자, 저자제가 부르는가

괴이한지고, 군주의 통치 거기 우리들 벗은 없다

거긴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여의도와 같은 추악한 의회를 짓는 말인가 당산은 강대, 그대는 마왕

나를 현혹지 말라 신성한 한표로 눈발만 달라

불뿔이 웃기지 마라 수서있는 저자제는 독박있는 삼진 미진 자의 회귀 아니인가

속으면 안된다. 교활한 언론에 는 감응면 안된다. 세기말 중후군에

반도 오진한 그 순결한 상상 투기꾼의 역사 모리매의 생존론으로

우리가 살아갈에 오묘의 양심은 부시의 함리책 살인

우리가 바라야 할 희망은 비극만이 장식한 새상이인가

비단 수서뿐이라

이디 그제 수서뿐이라 미제에 미쳐비리고 일제에 현혹 당한

피명으로 붉은 한반도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한다

저기 민중의 휴먼기를 예리한 두검세로 인간만능을 들고서

우리 만물은 고결한 역사 앞에서 부끄러웠을 후인으로 서야한다

사람의 특가들을 의외로 겸양로 행정부로 내뿜으며

21세기 당한 조선 생생한 박동을 건설해야한다

담스런 꽃봉을 해충을 잡지 않는 한 우리들의 붉은

피우지도 영결지도... 하릴없이 사들고 말리라

죽기에 기생한 황제 전횡을 막벌지 않는 한

우리들의 붉은 여름 가을 계절 없는

병(病)이 되어 병(病)이 되어 이 장단을 덮으리라

색이기는 한반도 이기 불멸한 바위에 되어

목표하로, 수서비리/ 문명비리/ 의지라,

야만의 분단 분개 칠광을 넘어 희망의 조국 사르는

유령한 함성 되어

강 광 회

(법·법학2)



"하늘에 닿을라"

—지난 19일(화)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비상학원총회에서—

(주재영 기자)



케트 콜비츠
—카타리나 크라이 자음
—이순재, 최영진 옮김

미세세계에서 관화를 중요

한 위치로 끌어올린 독일의 이

류판화가가 미술품가인 케트

콜비츠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논한 책이다.

철학인 민중적 입장에서 자

신의 예술세계를 탐해오면서

서 억압받는 민중의 해방을 위

해 노력한 케트 콜비츠의

삶을 엿볼 수 있으며 그녀가

프롤레타리아 미술의 선구자로

불러지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천문화사 펴냄 244쪽 3천

원) 하나됨을 위하여

—이세진 지음

제도교육의 틀속을 막 빠져

나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고

심하는 신인생들을 위해 쓰여

진 책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한마디를 위하여

—이세진 지음

물음에서 시작하여 대학사회의

모습, 모순된 사회현실, 그리고

민중들의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은 신인생들이 「무엇

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

는데 길잡이의 역할을 해줄 것

이다.
(새날 펴냄 244쪽 8천원)

김경주씨 개인전

현실주의 조각가 김경주씨

의 개인전이 3월29일(금)부터

4월4일(목)까지 「그림마당」

에서 열린다.

현재 광주, 전남 미술인 공

공예 회관으로 지역 미술 운동

에 힘을 쏟고 있는 작가의 첫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는 5월

광주의 혁명적활동을 진행한

「돌발」, 「대중예술」과 광주를

둘러싼 농촌지역의 현실을 그

린 「불편지」, 「타는 나락원」

속에서 「추곡수」, 등의 인물

화에도 자연을 묘사한 풍경화

「산은 무덤산」 「귀가」 등이 전

시된다.

▲장소:종로구 해방로 그

림마당 입(734-9662)

‘91 자, 우리 손을 잡아

—한국민중예술인총연합회 주최

3월30일(토)과 31일(일) 이

틀동안 연세대학교 4천극장에

서 민주세력 총단결을 위한 노

래 한마당 ‘91 자, 우리 손을

잡자」가 한국민중예술인총합

주최로 공연된다.

민중예술인의 창립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공연은 민족

음악인들의 단결된 힘을 보인

다. (문의:한국민중예술인총합

회 735-2407)

▲장소:3천원

▲언락 및 문의처:한국민

중예술인총합(735-2407)

지금 무얼 하십니까?

두검세로 민중의 마음을 한데 결

집시키려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다. (문의:한국민중예술인총합

회 735-2407)

▲장소:3천원

▲언락 및 문의처:한국민

중예술인총합(735-2407)

외대학보사의 광고질서 바로잡기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외대학보의 광고계약 문제에 대한 1백여 외대 언론인들의 입장

게상 이후 두번이나 발행된 외대학보의 광고면에서는 상품광고

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지난 89년 이래 계속된 외대학

보사의 광고질서 바로잡기운동의 진행과정에서 또다시 나타난

문제입니다. 대이상 학교당국과 학생계간의 마찰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이 사태가

대학의 이념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매듭지어지기를 촉구합

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광고질서 바로잡기

운동의 성과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광고질서 바로잡기운동이 시작된 이후 외대학보의 광고면은 분

명히 변화하였고, 이제 대이상 외대학보의 광고면에서 「미·일 제

외대학보의 광고계약은 「돈」의 많고 적음

으로 결정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외대학보사는 일반 신문과 같이 상품성을 지닌 제도언론이 아

니라 1년3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지는 정돈지입니다. 그

렇기에 외대학보의 광고 계약 문제는 단지 돈 한푼 더 받느냐 마

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1년3천 독자들에게 대

「책임」을 지는「문제」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이익」생기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식의 자본의 논리는 질

대로 민주적이어야 할 대학 사회내에서 통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외대학보의 광고계약은 학교측이 독단적으

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학보의 주인인 1만3천 독자들의 판단에 의

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외대학보의 주인이 1년3천 독자들이라는 것을 주지할 때, 외대

학보의 제안사업이나 계약에 대한 결정권은 바로 그 「주인」에게

있음을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번 광고계약의 문제로 인해 독자들

이 바라는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주인

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어느 일방의 「독단적 결정」이 내려지는

는 안될 것입니다.

1백여 외대언론인들은 외대학보사의 광고

질서 바로잡기운동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대하여 나갈

것입니다

외대학보의 광고계약 문제는 단지 학보사 기자30명과 주관교

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외대 언론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1백여 외대언론인들은 외대학보의 광고계약문제가 일방

적인 독단으로 해결되느냐,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음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엄정한」 광고로, 대외사회를 현혹하는 악의

광고, 대행사의 이에 조종하는 학교당국에 있음을 명백히 합니

다. 올바른 「외대학보」 「나라사랑」의 정신으로 의연히 싸우고

있는 외대학보사 기자들의 입장을 우리는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합

계 싸워 나갈 것입니다.

나라사랑 47년 3월26일